

기초교육원 콜로키움
2023.11.21

문학, 욕망의 윤리를 말하다

- inu 세미나 강좌 <문학의 욕망과 윤리> 과목 개설안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최혜림



INU 세미나의 목표

- 교양교육의 목표인 '융복합 역량 강화와 문화적 창의성 및 인성을 갖춘 국제화된 시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양교육'을 지향하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교양 교육과정
- 대학 진화의 단계('대학4.0')를 넘어 미래 대학('대학5.0')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 능력, '통섭·융합' 능력, '창의적' 능력을 갖춘 '미래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 교양교육 영역을 선도하는 우리대학 교육 혁신의 토대를 마련해야 함



강의 목표

문학의 본질적인 요소인 '욕망과 윤리' 개념을 관련 이론과 문학 작품을 통해 심층적으로 탐색해 본다.

'도덕이 끝나는 곳에서 법이 시작되고, 도덕이 멈추는 곳에서 윤리는 시작된다.'는 명제를 동서양의 문학작품과 이론 읽기를 통해 문학이 말하는 욕망과 윤리의 의미를 탐구해 본다.

문학이 탐구하고 제시한 인물의 욕망 실현 과정과 윤리적 태도를 통해 복합적인 시선으로 인간의 깊이를 다층적으로 탐구해 본다.



교과목 개요

'문학의 윤리'란 사회통념으로서의 도덕의식이 아니다. 문학의 윤리란 어디까지나 주체의 자기 탐색과 결단 속에서 매순간 이루어지는 삶의 태도이다. 그러므로 주체의 욕망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으로 부도덕, 불법적인 행위로 비춰보일지라도 오히려 그 인물들이 추구하는 욕망이 진정한 윤리적 자기 탐색이고 인간의 깊이를 드러내는 과정일 수 있다. 이 강좌는 욕망과 (도덕과 차별되는) 윤리적 태도를 천착한 문제적인 작품들을 통해 인간의 욕망과 윤리의 문제를 탐색하고자 한다.



강의 실행 모형 (C형 채택)

실행 모형	구성 방식	비고
A	읽기+해설강의+토론+발표+동영상	요약 및 심화 동영상을 4회 이상 제공. 동영상 길이는 15분.
B	동영상(해설강의)+읽기+발표+토론	매주차 30분 정도의 동영상을 제공하는 플립러닝 기반
C	읽기+해설강의+발표+토론	강의 최대 30% 이하 권장



1. 공통 필독 텍스트

1) 이론 및 비평문(발췌독 및 강의)

스피노자, <<에티카>>

자크 라캉, <<에크리>> / 니체 <<도덕의 계보>>

들뢰즈, <<스피노자와 표현의 문제>> / <<카프카 : 소수적인 문학을 위하여>>

서영채, <<문학의 윤리>> / 양석원, <<욕망의 윤리 : 라캉, 정신분석과 예술, 정치, 철학>>

김 현,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한국문학의 위상>>

정과리, <<문학이라는 것의 욕망>> / 신형철, <<몰락의 에티카>>

2) 문학 텍스트

나쓰메 소세키, <<마음>>

베른하르트 솔링크, <<더 리더: 책 읽어 주는 남자>>

아니 에르노, <단순한 열정>(중단편)

김승옥, <무진기행>(단편)



2. 선택 텍스트(조별로 택 1)

다자이 오사무 <<인간실격>>, 장아이링 <<경성지련>> 단편집
박현욱, <<아내가 결혼했다>>, 아리시마 다케오, <<어떤 여자>>
톨스토이, <<안나 카레리나>>, 마르그리트 뒤라스, <<연인>>
발자크, <<고리오 영감>>, 존 파울즈, <<프랑스 중위의 여자>>
도스토예프스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 조별로 선택한 책은 각각 조별 토론 4회를 걸쳐 조별 발표문을 작성하여 발표한다. (4인 1조 5개팀 구성/ 발표는 30분 이내)



<주차 강의 구성: 독후 활동지 작성-토론- 강의 (조별 발표 전 12주차까지) >

시간	활동	내용	주의사항
1교시 (50분)	독후활동지 작성	강의 전에 읽어온 텍스트에 대한 독후 활동지 작성하기(독후활동지는 토론의 바탕이 되도록 질문을 구성함)	책에 대한 배경 지식 없는 독자로서 독후 활동지 작성하기
2교시 (50분)	조별 토론	1교시에 작성한 독후 활동지를 중심으로 텍스트에 대한 감상을 자유롭게 조별로 토론하고 토론지 작성하기	토론조는 매회 교체
3교시 (50분)	강의	저자 및 텍스트 소개, 텍스트의 사회적 문화적, 문학적 맥락 설명 분석도구(이론)을 통한 텍스트의 심화 분석, 텍스트의 문학사적인 평가	강의 내용에 대한 질의 응답



주차별 강의 계획서

주차	강의내용	활동 사항 및 과제
제 1 주	텍스트 소개 / 주차별 강의 내용 및 과제 제시	3주차까지 아니 에르노 <단순한 열정 > 읽기
제 2 주	<p>문학이란 무엇인가? 김 현,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정과리, <<문학이라는 것의 욕망>> 발췌독 및 강의와 토론</p> <p>조별 선택 텍스트 간략 소개(9권의 책 소개)</p>	선택 텍스트 조 짜기 (9권의 책 중 1권 선택하기)
제 3 주	<p>문학의 욕망이란 무엇인가? 스피노자, <<에티카>> / 들뢰즈, <<카프카-소수적인 문학을 위하여>>, 라캉 <<에크리>> 발췌독 및 강의와 토론</p> <p>아니 에르노 < 단순한 열정 > 독후 활동지 작성</p>	아니 에르노 < 단순한 열정 > 독후 활동지 작성



제 4주	<p>문학의 윤리란 무엇인가? 1</p> <p>들뢰즈 <<스피노자와 표현의 문제>> , 니체 <<도덕의 계보>> 발췌독 및 강의와 토론</p> <p>아니 에르노 <단순한 열정> 강의</p>	<p><단순한 열정> 조별 토론</p> <p>6주차까지 <<마음>> 읽기</p>
제 5주	<p>문학의 윤리란 무엇인가? 2</p> <p>서영채 <<문학의 윤리>> / 신형철, <<몰락의 에티카>> 발췌독 및 강의와 토론</p> <p>아니 에르노 독후 활동지 및 토론지 선별 발표</p>	<p>2-5주차 강의 내용에 대한 질의</p>
제 6주	<p>나쓰메 소세키 <<마음>> 독후 활동지 작성</p> <p>나쓰메 소세키 <<마음>> 강의</p> <p><<마음>>에 나타난 '윤리성' -도덕과 윤리의 차이 / 주체의 결단/ <<마음>>의 근대문학적 성격</p>	<p>소세키 <<마음>> 독후 활동지 작성</p> <p><<마음>> 조별 토론</p> <p>9주차까지 <책 읽어 주는 남자> 읽기</p>



제 7주	<<마음>> 독후 활동지 및 토론지 선별 발표 미선정 텍스트 소개 및 강의 (두 작품씩)	6-7주차 강의에 대한 질의
제 8주	중간 고사(오픈북 논술형) 예시 논제 공통 텍스트 2권을 문학의 욕망과 윤리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시오.	조별 선정 텍스트 조별 회의 1
제 9주	<<책 읽어 주는 남자>> 독후 활동지 작성 <<책 읽어 주는 남자>> 강의 -문학의 욕망과 윤리를 중심으로	<< 책 읽어 주는 남자>> 독후 활동지 작성 < <책읽어 주는 남자> > 조별 토론 조별 선정



제 10주	<<마음>> 독후 활동지 및 토론지 선별 발표 미선정 텍스트 소개 및 강의 (두 작품씩)	조별 선정 텍스트 조별 회의 3
제 11주	조별 미선정작 중 택 1 원작 영화 감상 예시) 영화 <<아내가 결혼했다>> / 영화 <<안나 카레리나>> 영화 <<연인>> / 영화 <<프랑스 중위의 여자>> 등 원작소설과 영화 비교 분석 강의	조별 선정 텍스트 조별 회의 4 과제 - 영화 감상문 쓰기 (14주차까지)
제 12주	조별 발표 1, 2조 발표 및 종합 토론 예시) 1조 다사이 오사무 <<인간실격>> 2조 장아이링 <<경성지련>> 조별 발표 피드백 및 보충 설명 미선정 텍스트 소개 및 강의 (두 작품씩)	조별 발표 질의 응답하기



제 13주	<p>조별 발표 3, 4조 발표 및 종합 토론</p> <p>예시) 3조 박현욱, <<아내가 결혼했다>> 4조 아리시마 다케오, <<어떤 여자>></p> <p>조별 발표 피드백 및 보충 설명</p> <p>미선정 텍스트 소개 및 강의 (두 작품씩)</p>	<p>조별 발표 질의 응답하기 단편 김승옥 <무진기행> 14주차까지 읽기</p>
제 14주	<p>조별 발표 5조 발표 및 종합 토론</p> <p>예시) 5조 발자크, <<고리오 영감>></p> <p>조별 발표 피드백 및 보충 설명</p> <p><무진기행> 독후 활동지 작성하기</p> <p>김승옥의 <무진 기행> -라캉 이론을 통해 분석 (강의)</p>	<p>조별발표 질의 응답하기 <무진기행> 독후 활동지 작성하기</p>
제 15주	<p>기말 고사 논술형 시험(오픈북)</p> <p>한 학기 동안 읽은 작품 중 한 작품을 선택하여 문학의 욕망과 윤리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시오.</p>	<p>중간, 기말고사 논술문을 바탕으로 기말 보고서 작성하기(17주까지)</p>



강의 진행 방법

<전반부 수업, 1주~11주 >

1. 문학의 욕망과 윤리에 관련된 이론서, 비평문들을 발췌독하고 강의를 통해 학생들의 개념 이해를 돕는다.(5주차까지)
2. 공통 도서 3권을 2-3주에 한 권씩 읽고 독후 활동지 작성 후 이를 바탕으로 조별토론한다.
3. 토론이 완료되면 강의를 통해 학생들이 작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지식을 쌓고 작품을 분석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4. 중간고사는 논술형으로 미리 주어진 논제에 대해 A4 한 페이지 이상의 완성된 글을 작성한다.(오픈북 형태로)
5. 중간 고사 이후 관련 영화 한 편을 감상(11주차)하고 토론 후 영화 감상문을 작성해 본다.



<후반부 수업, 12주~15주 : 기말고사>

1. 12주차부터는 조별 발표를 시작한다.
2. 8-11차에 걸친 조별 발표 회의를 바탕으로 조별 발표문을 준비한다.
3. 4명의 조원으로 구성된 다섯 조가 한 주에 2팀씩 3주에 걸쳐 발표한다.
4. 발표팀이 아닌 학생들은 발표를 듣고 질문지를 작성한다. (단독을 통해 질의를 받아 교수자가 좋은 질문을 선별함)
5. 기말고사는 논술형으로 미리 주어진 논제에 대해 A4 한 페이지 이상의 완성된 글을 작성한다.(오픈북 형태로)



수업 방식 및 성적 평가(절대평가p/f) 비율

강의	토론	발표	쓰기	총
30	30	20	20	100

발표	독후 활동지 및 토론지	중간 기말고사 및 기말보고서	출석	총
20	30	30	20	100

총 60점 이상일 경우 pass



윤리란 무엇인가?-본 강의가 상정한 윤리의 개념

윤리는 우선 도덕이 아닌 그 어떤 것이다. 도덕은 사회가 나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호명하면서 강제하는 습속에 가깝고, 윤리는 내가 나에게 스스로 부과하는 자유와 책임에 대한 명령(가라타니 고진)

선과 악이라는 초월적 기준에 근거하는 강제적 규율이 도덕이고, 좋음과 나쁨이라는 내재적 기준에 근거하는 임의적 규범이 윤리(들뢰즈)

어떤 식으로 말하든 우리에게 자유, 선택, 책임의 세계를 열어놓은 것은 (도덕이 아니라) 윤리라는 층위이다. 그리고 그것들 없이 주체는 성립될 수 없다. 윤리의장에서 우리는 비로소 주체일 수 있다. 어쩌면 주체의 수만큼 많은 윤리학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해도 좋다. 작가는 '에티카'를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지 않은가로 결정된다.(신형철, <<몰락의 에티카>>, pp.



도덕은 윤리적이 아니다!

니체는 <<도덕의 계보>>에서 선(good)과 악(evil), 그리고 좋은 것(good)과 나쁜 것(bad)을 구분할 것을 주장한다. 선과 악은 '우리'가 주어진 모럴(moral)이고, 좋고 나쁜 것은 '나'가 주어로 작용하는 에틱(ethics)이다. 선과 악은 나의 선호에 관계없이 사회가 이미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강제로 정한 규범이기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 집단적인 도덕이다. 반면에 좋음과 나쁨은 내가 주어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람과 그 삶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인정되는 나의 윤리적 행동지침이다. 선과 악은 사회에서 강제로 정한 보편적 규범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힘의 원천은 종교적 규율이나 사회적 관습과 같은 외부적 권위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좋음과 나쁨은 철저히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나의 입장과 태도와 결단에 따라 결정된다.



들뢰즈(Gilles Deleuze)는 도덕이 대문자(Morality)로 존재하는 반면 윤리는 언제나 소문자로 개별화(an ethics)된다고 하고, 하버마스(Jurgen Habermas)는 도덕은 옳고 그름의 영역이지만 윤리는 좋고 나쁨의 범주라고 구별했다. 도덕은 특정시대 특정사회에서 변함없이 예측가능한 처방규범predictable prescription이지만 윤리는 늘 사후적 판단unpredictable description이 되므로 윤리적으로 옳은 태도와 판단이라는 것이 선험적으로 존재하기 어렵다.

이처럼 스피노자를 비판적으로 계승한 많은 현대 철학자들은 도덕과 윤리를 구분하고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좋은 문학은 도덕이 아닌 윤리의 문제를 다룬다.

문학의 윤리는 법 담론이나 도덕법칙에 종속되지 않는다. 오히려 문학의 윤리는 도덕이 전체주의적 속성 때문에 폭력으로 작용하는 지점에서 반성적으로 개입한다. 도덕이 나 혹은 우리와 다름을 틀림으로 자기중심적 동일성identity을 추구할 때('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윤리는 다름에 대한 열림(openness to otherness) 혹은 거리로 작용한다('아, 그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윤리의식은 자기합리화가 될 위험을 늘 안고 있다. 좋은 문학작품이란 자기합리화에 그치지 않는 인물의 치열한 윤리적 모색의 흔적이 각인된 작품이다.



윤리를 말하면서 왜 사랑의 서사인가? -대상 텍스트에 연애소설이 많은 이유

인간학인 문학은 인간 서로 간의 여러 접촉과 감정의 기복이 문학의 핵심적인 주제가 된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애정 문제이다. 문학은 애정의 윤리가 어떻게 변천하느냐를 추적하거나, 아니면 애정 윤리의 변모를 선도함으로써 사회적 진보를 주도하게 된다. 연애 의식의 변모야말로 윤리의식 변화의 기폭제이며, 연애 윤리의 변화는 사회적 변혁의 토대가 되기도 한다. 연애 혹은 사랑에 대한 갈구는 인간의 가장 큰 욕망중 하나이기에 연애의 서사는 욕망의 윤리를 관통하게 된다.

예컨대 박현욱의 <<아내가 결혼했다>>에서 다루고 있는 폴리아모리 (polyamory, 다자간연애) 서사는 비도덕적인 남녀의 연애/결혼 관계를 설정하고 있지만, 비배타적 연애 혹은 결혼이 일부일처제와 양립할 수 남녀간의 관계설



욕망에 대하여

인간의 본질을 많은 철학자들은 '말하는 동물 내지 이성적 동물(아리스토텔레스)'이나 '정신과 신체의 연합(데카르트)'으로 규정했는데 스피노자는 인간의 본질을 욕망이라 규정했다. 스피노자는 코나투스(conatus)가 욕구 내지 욕망으로 표현되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라고 규정했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의지가 정신의 측면에서만 표현되는 코나투스라면 욕구는 정신과 신체에서 동시에 표현되는 코나투스이고 욕망은 욕구에 의식이 결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욕망이란 인간의 본질이 주어진 감정에 따라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도록 결정되는 한에서 인간의 본질 자체이다. 욕망은 자신의 의식을 동반하는 충동이고, 충동은 인간의 본질이 자신의 유지에 이익이 되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결정되는 한에서 인간의 본질 자체이다. -스피노자, <<에티카>>



라캉의 욕망에 대하여

라캉은 프로이트가 발견한 무의식과 소쉬르의 언어관을 적용하여 구조주의 이론을 만든다. 주체는 결핍이고, 욕망은 환유이다.

욕망은 환유이다. 대상은 신기루처럼 잡는 순간 저만큼 물러난다. 대상은 욕망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기에 인간은 대상을 향해 가고 또 간다. 죽음만이 욕망을 충족시키는 유일한 대상이다. 욕망은 기표이다. 그것은 완벽한 기의를 갖지 못하고 끝없이 의미를 지연시키는 텅 빈 연쇄고리이다. 욕망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주체는 대상에게 욕망을 느낀다. 그것이 자신의 결핍을 완전히 채워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것만 얻으면 아무것도 욕망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라캉의 욕망에 대하여

그러나 그 대상을 얻어도 욕망은 여전히 남는다. 결국 대상은 실재처럼 보였지만 허구인 것이다. 주체의 욕망을 충족시킬 것처럼 보이는 대상, 즉 대체가 가능 하리라 믿는 단계가 바로 은유이다. 그러나 충족시키지 못하고 다시 또 그 다음 대상으로 자리를 바꾸는 전치, 이것이 환유이다. 그러므로 욕망 역시 언어처럼, 무의식처럼, 은유와 환유로 구조되어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라캉은 이런 분석을 통해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일까, 이렇게 주체를 결핍으로 보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인가.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문장이 있다. 이 말은 물론 내가 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지켜보고, 하고 있음을 지켜보고 있는 또 하나의 '나'가 있다는 게 아닌가.



라캉의 욕망에 대하여

이 말을 하고 있는 '나'와 언급된 '나'는 바라보는 주체요, 말해진 '나'는 바라봄을 당하는 주체다. 거짓말을 하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나'. 그렇다면 '나'라는 주체 속에는 바라봄과 보여짐이라는 두 개의 주체가 있다. 바라보기만 하는 '나'가 아니라 보여짐을 당하는 '나'도 있다는 주체의 객관화이다. 그렇다면 데카르트의 주체는 보기만 하는 주체, 즉 보여짐을 당하는 주체를 상정하지 않은 셈이다. 보여짐을 모르는 주체가 위험한 이유는 아직도 대상을 실재로 믿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고착상태에 머물러 상황과 자신을 구별하지 못하고 소외된 신경증 환자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 고착에서 벗어나 대상이 허구임을 깨닫고 다시 또 연기된 대상을 향해가는 것, 대상으로부터 탈출하는 것, 끊임없이 대상에서 벗어나는 반복 없이 삶은 지속될 수가 없다.



라캉의 욕망에 대하여

라캉은 상징계가 주체를 탄생시키고 자아를 통해 자기중심적 대상관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고유한 현실 세계가 만들어진다고 말한다. 라캉은 상상계와 상징계로 나누어 자아의 본능적 욕망을 설명한다. 상상계에서는 자아가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친 이미지로 인식하는데, 이는 기표가 기의를 은폐하고 왜곡하는 것과 유사한 현상이다. 신경증환자가 바로 이 단계에 머물러 있다. 상징계에서는 자아가 언어와 사회적 규범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한다.

그런데 상징계는 결여를 낳기에 인간은 언제나 욕망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결여가 있다는 것은 그것에 배제되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라캉은 상징계의 구조적 우월성을 인정하면서도, 상징계가 결코 동화시킬 수 못하는 범주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바로 실재계이다. 칸트가 윤리적 행위에서 정념이나 목적성을 배제하고 선의지 자체만 기준으로 삼듯이 라캉은 욕망을 대상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이를 '순수욕망(désir pur)'이라고 정의한다.

라캉의 전신분석이 말하는 욕망의 선이 드던 극한의 상징계에 극복되지 않은 자신의 / 무



라캉의 욕망에 대하여

욕망은 결국 주체가 상실한 존재, 즉 '실재에 대한 갈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상징계의 틈을 뚫고, 상징계가 결국 완전한 존재의 질서를 보장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실재는 상징화가 절대로 동화되지 못하는 영역이 우리 삶에 존재함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 이때 라캉은 실재가 상징계의 틈을 뚫고 돌아오는 것이 '증상(symptome)'이라고 설명한다. 또 이렇게 돌아오는 억압된 실재와 만나는 것이 바로 '트라우마'이다. 상징계는 실재를 감당할 수 없기에 배척하면서 기표적 질서 속에서 실재를 상징적으로 구조화하려고 하지만 실재계는 상징화에 저항하며 이렇게 우리에게 돌아오는데 때문에 실재가 회귀하는 경험은 주체에게 언제나 낯설면서도 동시에 친숙하다.

라캉 이론을 통해 김승옥의 <무진기행>을 분석한 신형철 비평문을 검토하며 작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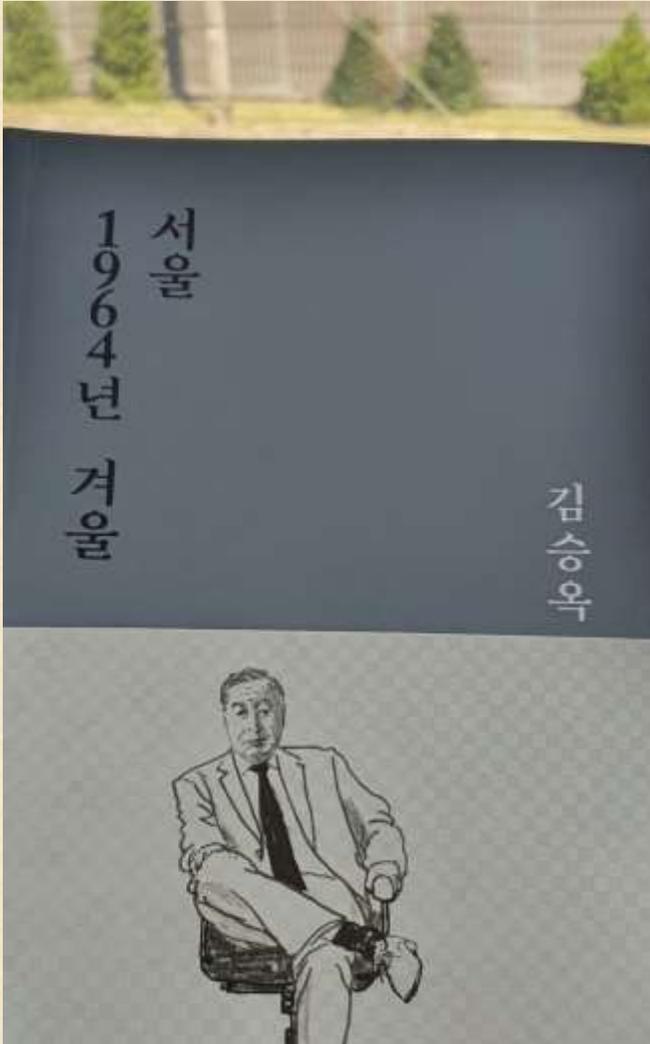


라캉 이론을 통해 분석해 본 <무진기행>

-분석비평의 예시

윤희중에게 욕망의 대상은 물론 하인숙이지만, 욕망의 원인은 하인숙 안에 있는 하인숙 이상의 것이고, 그것은 이를테면 하인숙의 노래(목소리) 속에 담겨 있는 '무자비한 청승맞음'과 '훨씬 높은 옥타브의 절규'다. 그 욕망의 '원인'은 하인숙이 충동의 공간인 무진에 있는 한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하인숙이 서울로 오면 그 욕망의 '원인'은 사라져버릴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윤희중이 하인숙을 포기하는 것은 우울증적(melancholic) 주체의 전략과 유사해 보인다. 지적에 의하면 "우리가 가져본 적이 없는, 애초부터 잃어버린 것인 대상을 소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충분히 소유하는 있는 것을 마치 잃어버린 것처럼 다루는 것이다." 하인숙을 포기함으로써, 즉 모성적 초자아와 타협함으로써 그는 멜랑콜리적 상태에 빠지지만, 그것을 실상 한 번도 가져 본 적이 없는 하인숙을 영원히 갖기 위한 제스처, 혹은 '나비부인' 환상을 그후로도 오랫동안 지속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윤희중이 마지막에 느끼는 '부끄러움'은 '죄의식'이기보다 멜랑콜리적 우울의 변형이라고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또 다시, 무진을 향하여, 잃어버린 향유를 찾아서, '증상으로서의 여행'을 혹은 강박증적인 오디세우스의 여행을 떠날 것이다.



-신형철, <<몰락의 에티카>>,

텍스트 소개

공통 텍스트

나쓰메 소세키, <<마음>>/ 베른하르트 솔링크, <<더 리더: 책 읽어 주는 남자>>
아니 에르노, <단순한 열정>(중단편) / 김승옥, <무진기행>(단편)

선택 텍스트(조별로 택 1)

다자이 오사무 <<인간실격>>, 장아이링 <<경성지련>> 단편집
박현욱, <<아내가 결혼했다>>, 아리시마 다케오, <<어떤 여자>>
톨스토이, <<안나 카레리나>>, 마르그리트 뒤라스, <<연인>>
발자크, <<고리오 영감>>, 존 파울즈, <<프랑스 중위의 여자>>
도스토예프스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아니 에르노, <<단순한 열정>>(1991)



사랑(amor)이란
외부의 원인에 대한 생각을
수반하는 기쁨이다
-스피노자, 『에티카』

사랑이란 무엇보다도 먼저 기쁨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스피노자는 기쁨의 감정은 '인간이 작은 완전성에서 더욱 큰

완전성으로 이행할 때' 발생하는 감정이라고 말한다.

자신이

더욱 충만해진다는 감정이 바로 기쁨인 것.

사랑이란 감정은 특정한 외부 대상을 전제로 하는 기쁨.

사랑에 빠진 사람의 표어가 '당신 뜻대로'인 이유는 상대방을 붙잡아 두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유혹, 그러니까 내걸





내 의지나 욕망, 그리고 지적 능력이 개입되어 있는 행동은 오로지 그 남자와 관련된 것뿐이었다. 약속 시간을 알려올 그 사람의 전화 외에 다른 미래란 내게 없었다. 그의 전화를 받지 못할까봐 가급적 외출을 하지 않았고, 행여 전화벨 소리를 못 들을까봐 진공청소기나 헤어드라이어를 사용조차 피했다. 나는 이 남자와 침대에서 보내는 오후 한나절의 뜨거운 순간이 아이를 갖는 일이나 대회에서 입상하는 일, 그리고 멀리 여행을 떠나는 일보다 내 인생에서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열정이 다하면 죽게 되더라도 상관없을 것만 같았다.

나는 사람들에게 대한 연민과 고통과 우정이 뒤섞인 묘한 감정을 느꼈다. 일 없이 벤치에 누워있는 사람들, 창녀촌에 단골로 드나드는 사람들, 그리고 통속 소설에 빠져 있는 여자들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사랑의 열정은 자아 상실의 경험이요, 사건이다. 그것은 마치 햇빛을 받으며 즐기고 있던 들판의 나무가 느닷없이 내리친 마른 벼락에 맞는, 예고없는 결정적 사건이다. 열정은 맹목적이기에 단순한 것이다.

사랑의 열정은 공동체와 교환가치에 얽매인 결혼이란 것과는 다른, 순수성이자, 생명의 근원적인 몸짓에 속하는 행위일 뿐이다."사랑은 제도화된 사회적 교환을 교란시키는 저항할 수 없는 유혹을 만들어낸다."-파스칼

열정은 특정한 단 한 사람을 향하는 지극히 사적인 삶의 격렬한 분출이다. <단순한 열정>은 외국인 유부남 외교관과 치명적인 열정에 빠져들고, 내밀한 욕망, 질투, 기다림의 고통, 섹스 등 모든 감정의 격동을 세밀하고, 정확한 언어로 그려 보인다.

금지된 사랑의 경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비밀스럽고, 더 조심스러우며, 기다림은 더 길고 막연하며 만남의 순간은 짧고 깊다. 최종적 만남의 '불가능성'을 어떻게 맞이하고 열정적 사랑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도 이 소설이 천착하는 문제이다.



사랑의 역설 :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자신을 건네다

우리는 타자를 알아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빠지면서 타자를 알아가게 된다. 무엇인가를 알아 가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것을 사랑해야만 한다.

사랑은 우리를 새로운 것, 혹은 낯선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몰입과 호기심을 낳고, 그것이 마침내는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앎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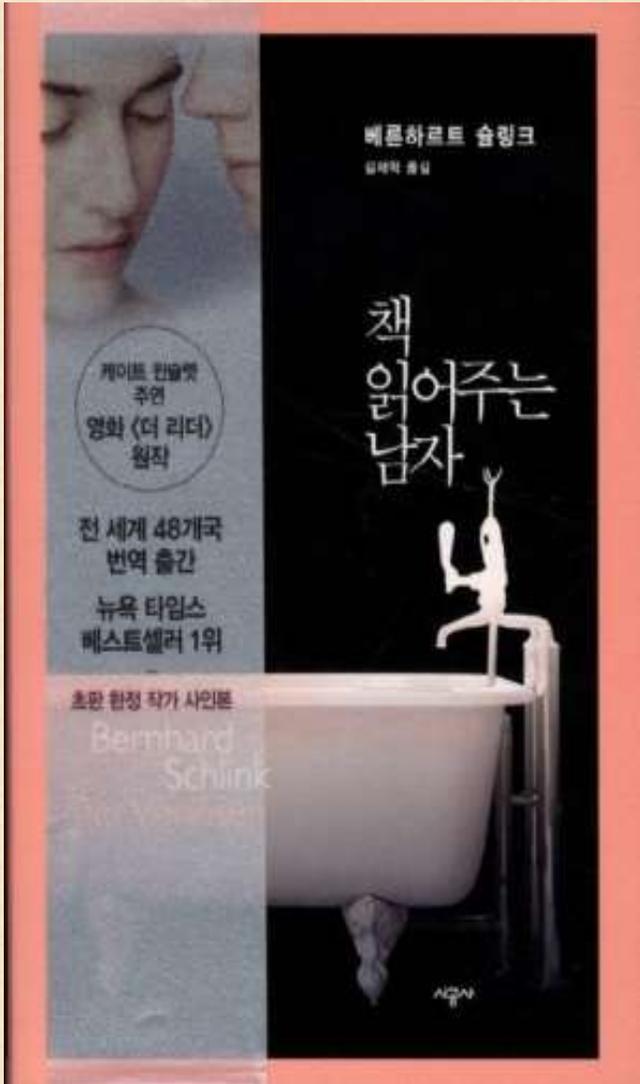


<토론해 볼 문제들>

1. 유부남인 그에 대한 거침없는 '나'의 사랑이 어떻게 느껴졌나?(솔직한 정서적 반응)
2. 사랑에 빠진 '나'의 행동과 감정이 공감이 되는지?
3. '이별이 예정된 사랑'을 나(독자)라면 실행에 옮길 수 있는지?
4. 불륜에 빠진 '나'를 단죄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면 누가 단죄할 수 있을까?
5. 욕망 앞에서 자신의 도덕이 무너진 경험을 해 본 적이 있는가?
6. 욕망 앞에서 물러서지 않은 '나'의 연애는 의미가 있을까? 무의미한 몸짓일까?



베른하르트 슈링크의 <<책 읽어 주는 남자>>(1995)



베른하르트 슈링크의 <<책 읽어 주는 남자>>는 사랑과 죄, 용서, 책임, 윤리의 문제를 천착해 볼 수 있는 텍스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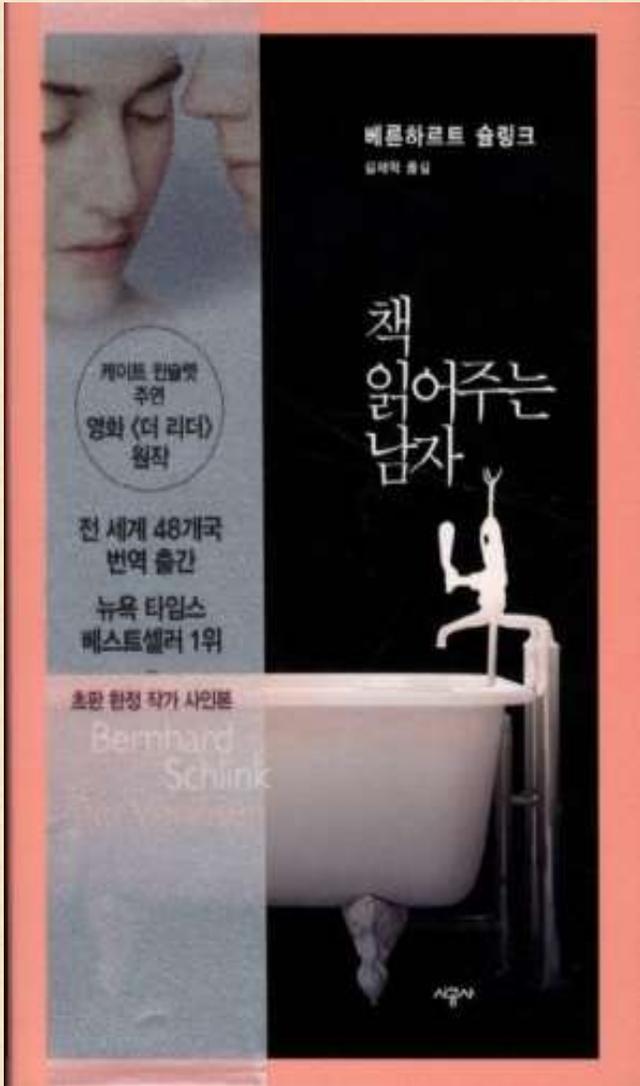
이 작품은 이차 대전 이후 독일을 배경으로 15살인 소년(미하엘)과 36살 여성(한나)의 사랑 이야기이다. 소위 비정상적인 애정 관계의 설정이나 둘 사이 애정 묘사의 수위로 인해 단순히 에로티시즘에 몰두한 작품이라는 편견이 생기기 쉬우나, 이 작품은 한나의 숨겨진 나치 전력 과거가 드러나고 나치 전범 재판과정과 수감생활을 통해 단죄와 용서, 죄의식과 책임 윤리라는 문제까지 천착해 나가는 문제작이다.

<<책 읽어 주는 남자>>는 1960년대 독일의 대학가의 분위기와 나치 전범 재판과정 등 당시 시대사와 얽혀 당대의 정치, 사회적 분위기가 미하엘의 눈을 통해 치밀하게 묘사되어 있다.

사랑과 속죄, 책임, 용서 그리고 윤리적 자세에 대하여

어린 소년과 30대 여성의 데이트는 좀 독특했다. 소년이 여인에게 책을 읽어준다. 책을 읽고 나면 사랑을 나눈다. 소년은 그녀에 대해 아무 것도 알지 못한 채 결국 둘의 관계는 그의 뇌리에 그녀의 몇 가지 인상을 또렷이 각인시킨 채로 그녀가 갑자기 사라져 버리면서 끝나게 된다.

그후 미하엘은 대학에 진학하여 법학을 전공하고 세미나에 참가하던 중 우연히 전범 재판을 받고 있는 한나를 발견하게 되고, 소설은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소설의 2부는 그녀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녀는 나치의 수용소 감시자였고 유대인 여자들을 이송 중 교회에 가두어 불에 타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다. 재판 중 알려진 사실은 한나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적인데, 다니던 회사에서 승진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나치 친위대로 들어간 것이다. 그녀는 문맹을 숨기고 싶어서 승진을 거절한 것이다.



사랑과 속죄, 책임, 용서 그리고 윤리적 자세에 대하여



3부는 한나의 수감부터 현재까지의 이야기다. 미하엘은 겉으론 성공한 법제사 연구학자이나 내면적으로는 한나에 대한 기억과 그리움 때문에 일상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 결혼하여 딸을 낳았으나 애정이 없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이혼한 그는 한나와의 사랑이 그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깨닫고 한나가 수감 8년째 되던 해부터 그녀에게 책을 읽어 녹음하여 보낸다. 그녀가 가석방될 때까지 10년 동안 녹음테이프를 통해 한나가 글을 배워 편지를 보내왔지만 그는 녹음 테이프를 보내는 것 외에 그녀와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는다. 한나를 절실히 그리워하지만 그녀를 만나지 않는다. 결국 한나가 석방되기 며칠 전 그는 그녀를 찾아가서 가석방 이후 거처를 마련한 이야기를 전한다. 그러나 그녀는 석방 예정일 새벽에 자살한다. 죽은 그녀를 찾아간 그는 자신의 사진이 실린 기사를 발견하고 그에 대한 그녀의 변함없는 사랑을 깨닫는다

<<책 읽어 주는 남자>> 독후 활동지

1. 주요 인물과 서사를 20줄 이하로 서술해 보시오.
2. 미하엘과 한나의 연애를 거부감 없이 느꼈는지 부정적으로 다가왔는지 솔직한 느낌을 서술해 보시오.
3. 결과적으로 나치에 부역해서 많은 유대인을 죽게 만든 한나가 법적, 도의적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서술해 보시오.
4. 한나가 재판 과정 속에서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이유가 단순히 문맹임을 감추려는 마음뿐이었던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자신의 생각을 서술해 보시오.
5. 가석방을 맞은 한나가 자살을 선택한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자신의 생각을 서술해 보시오.



<<책 읽어 주는 남자>> 토론지(예시)

<토론해 볼 문제들>

1. 소년 미하엘과 한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었나?
2. 소년 미하엘과 한나의 연애를 사랑이라 부를 수 있을까?
3. 결과적으로 나치에 부역해서 많은 유대인을 죽음으로 내몬 한나는 법적 도의적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하는가?
4. 재판 과정 속에서 한나가 문맹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 미하엘의 태도를 비판할 수 있는가?
5. 한나가 재판 과정 속에서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이유가 단순히 문맹임을 감추려는 마음이었을까?
6. 가석방을 맞은 한나가 자살을 선택한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나쓰메 소세키 <<마음>>(1914)

주체의 윤리적 태도에 관하여

자신의 죄 아닌 죄를 떠맡으려고 하는 윤리적 태도

이런 윤리는 효용성과 합리성의 세계에서는 일종의 잉여로 취급되겠지만, 그것이 주체를 자율적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주체적 삶의 태도이다.

‘선생’은 어렸을 적 친척에게 배신당한 경험으로 사람들을 믿지 않는다. 그러던 중 하숙집에서 한 여자와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존경하는 친구도 그녀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친구의 고백을 통해 알게 되지만 선생은 친구를 기만하고 그녀와 결혼하고자 한다. 하지만 친구를 기만하였다는, 그로 인해 친구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죄의식은 ‘선생’의 인생을 지배한다. 결국 ‘선생’은 그를 믿어주고 따랐던 ‘나’에게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다.





소세키는 자아가 받는 고통을 형상화하는 한편, 주체의 진정성을 드러내기 위해 ‘자기분위’과 죄의식의 문제를 끌어들인다. 『마음』에서 선생이 보이는 자책은 당혹스러울 정도이다. 그가 자신을 윤리적인 존재로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친구의 죽음에서 그가 감당해야 할 책임에 비해서 그가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자책의 수위는 너무도 높다. 작품 속에서 소세키가 제시하는 자기분위의 문제는 자신의 욕망을 직시하는 자의 자기인식이다. 자신을 들여다보는 행위에는 책임이 따르고 그것은 자기 고백으로 이어진다.

소세키의 작품에서 윤리적인 문제와 그것에 대해 자책하는 인물들, 그들의 고백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그들의 내면을 드러내고 진실한 주체를 형상화하려는 방법이다.

<토론해 볼 문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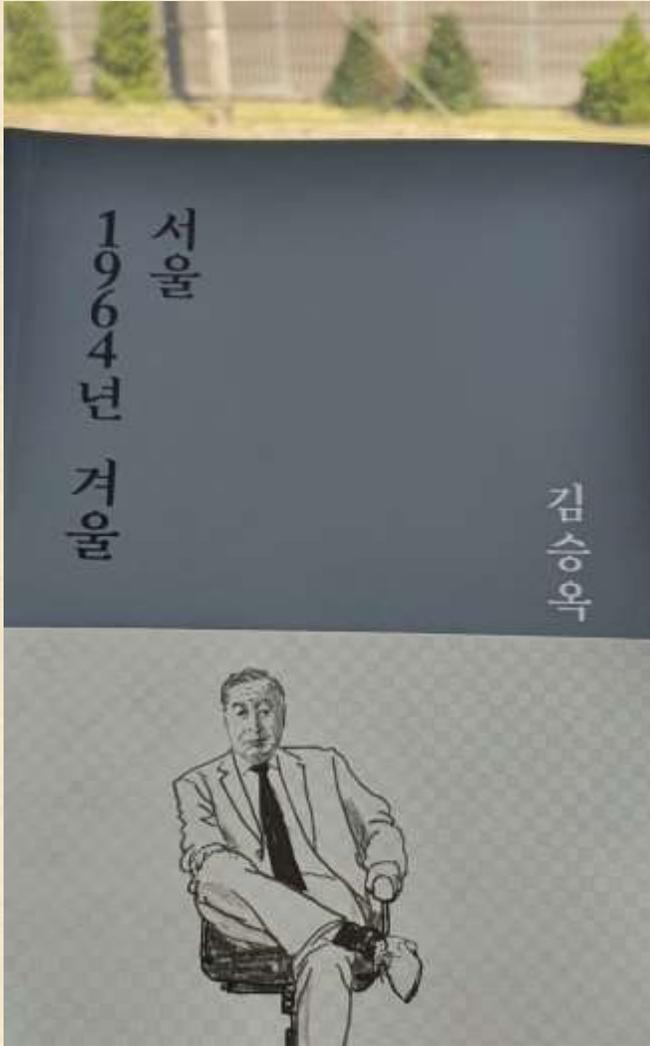
1. 선생은 친구 K를 왜 자신의 하숙집에 함께 머물게 했을까?
2. 친구 K의 고백을 듣고 선생은 왜 자신의 마음을 숨겼을까?
3. 친구 K가 자살을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4. 선생이 자살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5. 자신의 죄 아닌 죄를 떠맡으려고 하는 자세를 윤리적 결단이라 부른다면 선생의 삶의 태도는 윤리적이라 말할 수 있을까?
6. 욕망 앞에서 자신의 윤리가 무너진 경험을 해 본 적이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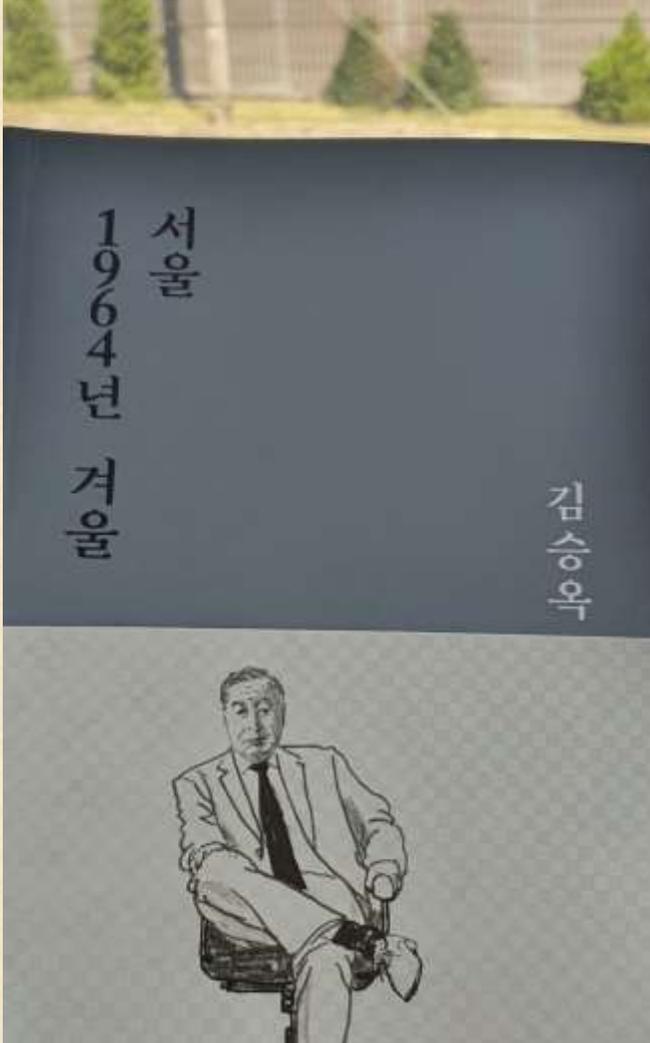


김승옥, <무진기행> (1964)

제약회사의 전무가 되기 전, '나'(윤희중)는 아내의 권유로 고향인 무진에 가기로 한다. 무진으로 갈 때 반수면 상태로 버스를 타로 가다, 버스 안 사람들의 대화를 들으며 무진의 명물은 안개라는 생각을 한다. 무진에 도착해서 학교 후배 박, 동창 조, 음악교사 하인숙을 만난다

잠시 쉬기 위해 고향 무진에 돌아온 윤희중은 도착하는 순간부터 어둡던 청년시절을 생각한다. 후배 박과 함께 친구 조를 방문한 윤희중은 성악을 전공한 하선생을 만난다. 한밤중에 하선생과 함께 걸던 윤희중은 현재의 그녀에게서 우울했던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성묘길에 목격한 자살한 사람의 시체, 하선생과의 육체적 관계와 서울로 데려가주겠다는 지키지 못할 약속 등을 하며 윤희중은 무진의 안개만큼 내면의 혼란을 겪게 된다. 그러나 상경하라는 아내의 전보를 받고 윤희중은 하인숙과의 약속을 뒤로 한 채 무진을 떠난다.





윤희중에게 욕망의 대상은 물론 하인숙이지만, 욕망의 원인은 하인숙 안에 있는 하인숙 이상의 것이고, 그것은 이를테면 하인숙인 노래(목소리) 속에 담겨 있는 '무자비한 청승맞음'과 '훨씬 높은 옥타브의 절규'다. 그 욕망의 '원인'은 하인숙이 충동의 공간인 무진에 있는 한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하인숙이 서울로 오면 그 욕망의 '원인'은 사라져버릴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윤희중이 하인숙을 포기하는 것은 우울증적(melancholic) 주체의 전략과 유사해 보인다. 지적에 의하면 "우리가 가져본 적이 없는, 애초부터 잃어버린 것은 대상을 소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충분히 소유하는 것을 마치 잃어버린 것처럼 다루는 것이다." 하인숙을 포기함으로써, 즉 모성적 초자아와 타협함으로써 그는 멜랑콜리적 상태에 빠지지만, 그것을 실상한 번도 가져 본 적이 없는 하인숙을 영원히 갖기 위한 제스처, 혹은 '나비부인' 환상을 그후로도 오랫동안 지속하기 위한 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윤희중에 마지막에 느끼는 '부끄러움'은 '죄의식'이기보다 멜랑콜리적 우울의 변형이라고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또 다시, 무진을 향하여, 잃어버린 향유를 찾아서, '증상으로서의 여행'을 혹은 강박증적인 오디에서스의 여행을 떠날 것이다. -신형철, <<몰락의 에티카>>, pp.113-114

<토론해 볼 문제들>

1. '무진'이란 주인공에게 어떠한 욕망을 가능하게 한 공간인가?
2. 주인공이 하인숙에게 품은 감정은 어떠한 형태의 애정일까? 혹은 애정이 아니라면 어떠한 감정일까?
3. 서울로 돌아가며 주인공은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했다. 이 '부끄러운 감정'의 정체는 무엇일까?
4. 24살의 김승옥은 "왜 나는 서울에서 실패하면 꼭 고향을 찾는가"라는 질문을 붙들고 <무진기행>을 썼다고 한다. 이 말의 의미로 <무진기행>을 해석해 본다면?
5. 강의 시간에 배운 라캉의 개념 몇 가지를 활용하여 <무진기행>을 해석해 보자.



아리시마 다케오 <<어떤 여자>>(1919)

1902년 이혼 경력이 있는 한 여성이 미국에 있는 약혼자를 만나러 미국행 여객선에 올랐다가 유부남인 그 배의 사무장과 사랑에 빠지는 일이 일어났다. 그녀는 미국 땅은 밟아보지도 않고 귀국하여, 약혼자가 있는 몸으로 유부남과의 열애를 이어간다. 이 일은 청일전쟁의 종군기자로 명성을 날린 시인이자 소설가 구니키다 돗포(國本田獨歩)와 그의 전처 사사키 노부코(佐佐城信子) 등, 당대 지도급 명사가 다수 관련되어 신문에까지 기사화될 정도로 화제를 모았다. 또 이 사건의 인물들이 작가와 연관이 되어, 이 작품 『어떤 여자』가 탄생하는 계기가 된다.

『어떤 여자』의 여주인공 요코 사쓰키는, 스스로의 본능에 정직하고 자유를 향한 열망이 강렬한 인물이다. 그녀는 시대가 요구하는 여성상에 자신을 맞추기보다는 자신의 욕구에 따라 삶을 개척해가며 끊임 없이 사회 및 주변 사람들과 부딪히게 된다. 가족, 남자, 제도, 종교 등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서고자 하는 요코는, 연애결혼과 이혼, 사생아 출산, 유부남과의 불륜 등과 같이 당대 사회적 가치관에 배치되는 인생사를 겪으며 사회적 통념들과 정면대결을 벌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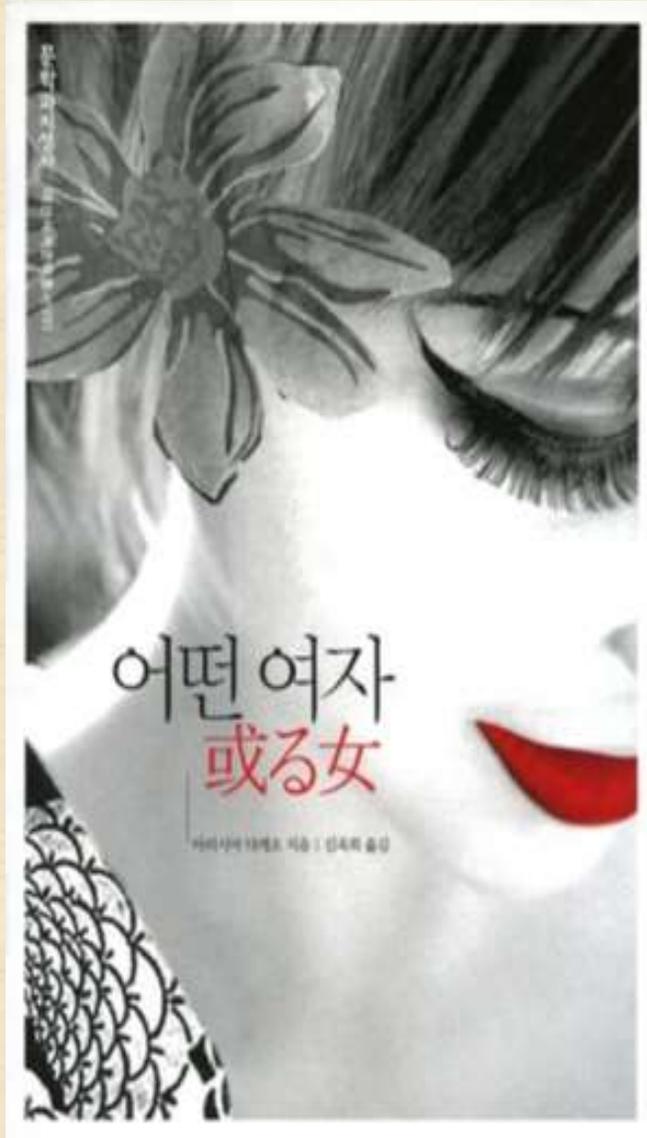
투스투이 <<안나 카레리나>>와 연상선 김동의 소설과의 상호 텍스트성에도 주목



아리시마 다케오, <<어떤 여자>>(1919)

《어떤 여자》의 문학적 성취는 한창 서구화가 진행되고 있었던 일본 근대사회의 풍경을 세밀하게 그려내는 가운데 한 여성의 삶과 내면세계를 예리하게 꿰뚫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사회 전반적으로는 서구화 근대화 정책이 진행되고 있으면서도 여성은 여전히 자아가 통제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현실, 그리고 거기에 저항하며 자신의 본능대로 살고자 하는 여성의 이야기는 '진정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일본 현대 문학의 고전 반열에 들 수 있다.

아리시마 다케오는 많은 면에서 톨스토이와 닮아 있다. 소작인들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돌려줄 만큼 진보적인 사상가이자 "사랑은 아낌없이 뺏는 것"이라는 주장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작가이다. 1922년에는 작가로서의 양심 선언이라 할 만한 <선언 하나>라는 글을 발표함과 동시에,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받아 당시 아버지의 농장을 토지 공동 소유 형태로 소작인들에게 무상 증여하였다. 아리시마 다케오는 잡지 <<부인공론>>의 기자였던 하타노 아키코(波多野秋子, 1894-1923)와 만나게 되는데, 유부녀였던 그녀와의 사랑을 현실적으로 지속할 수 없었기에 동반 자살한다. 아리시마 다케오를 존경하던 극작가 김우진이 아리시마의 자살에 충격을 받았고, 윤심덕과의 현해탄 동반 자살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



박현욱, <<아내가 결혼했다>>(2006)



<<아내가 결혼했다>>를 읽고 독자들은 ‘결혼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다. 박현욱은 “남녀간의 사랑과 결혼제도에 숨어있는 모순을 극단적 상황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일처다 부라는 파격적 소재를 택했다”고 말한다.

아내는 다른 남자를 만났고 그와 결혼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러면서도 나와 이혼하지 않으려 했고 결국 이혼하지 않았다. 역시 사랑한다는 이유로. 나는 그런 아내와 헤어지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놈은 남편이 버젓이 있는 여자와 결혼을 해버렸다. 그 또한 사랑한다는 이유로.

대체 사랑이 뭐길래?

- <<아내가 결혼했





엔겔스는 사랑이란 이렇게 불타는 것이므로, 그런 격렬한 감정을 지속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며, 특히 남자들의 경우 더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엔겔스에게 있어 사랑이 결혼으로 연결되어 귀착되는 ‘가정적 행복’이란 사실상 사랑이 없는 권태로운 삶을 위장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엔겔스는 사랑에 기반한 결혼생활이란 그 속성상 장기간 지속되기가 어렵다. 때문에 연속적으로 바뀌는 일부일처제(serial monogamy)가 가장 이상적인 결혼제도가 된다. 따라서 이혼과 재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는 것,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책임은 사회가 지는 것, 이것이 엔겔스가 내놓은 대안이었다.

- 프리드리히 엔겔스, <<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1884)



다자간 연애 (polyamory)는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과 만 결혼하는 '일부일처제', '일처일부제'의 概念에 반(反)한다.

남녀 관계에 대한 새로운 탐색으로 텍스트 읽기- 남녀관계의 상호개인적 윤리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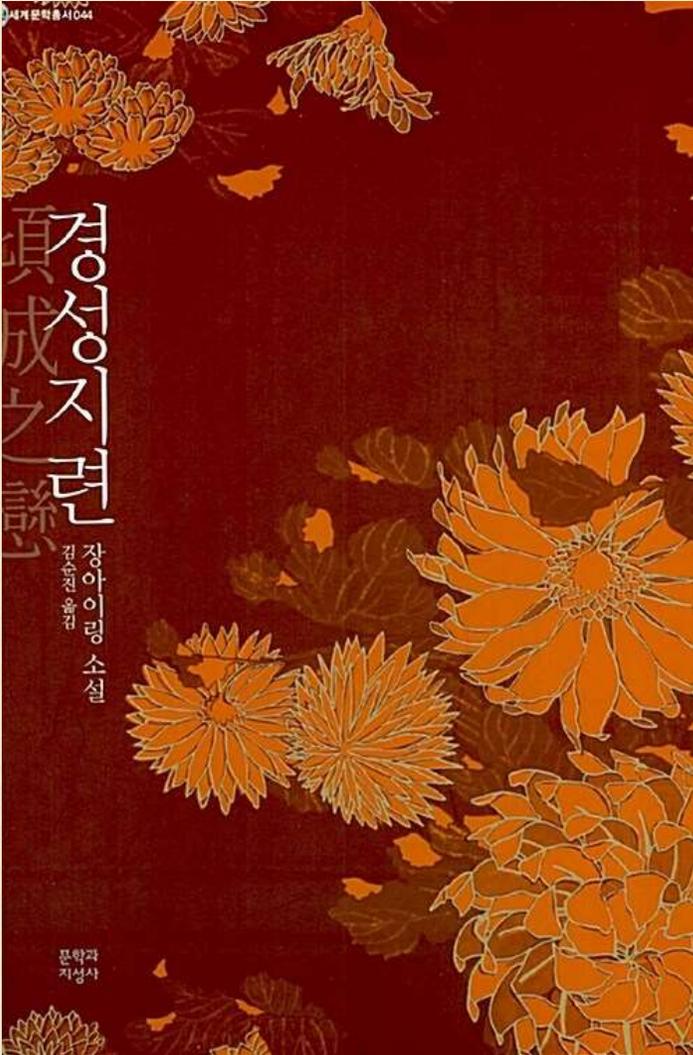
낭만적 사랑과 결혼의 상충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장아이링, <<경성지련>>(1943) - 역사와 개인의 욕망 사이에서

1941년 12월 7일과 8일 일본의 공격으로 인해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 날은 1941년 12월7일 이었다. 12월 8일. 포성이 울렸다.

<경성지련>은 이혼한 한 여자(바이류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그녀는 젊어서 이혼을 한 후, 친절으로 돌아와 살면서 가족들에게 온갖 무시를 받으면서 불행한 나날을 보낸다. 그녀의 (가문의 명예는 있으나 경제적으로 몰락해 가는) 가문은 전형적인 봉건적인 집안을 대표하는데, 바이류쑤는 염치도 없고 여성으로서 실패한 삶을 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녀는 끔찍한 집이라는 공간을 벗어나고 싶었다. 그러던 중 쉬부인의 소개로 홍콩의 부자인 판 류위엔과 만나게 되는데, 그녀는 가족들에게서 벗어나고자 판류위엔과의 재혼을 꿈꾸게 된다. 그런 류쑤를 보고 가족들은 또 무시하고 욕하지만, 그녀는 분노와 복수심으로 더욱 더 재혼에 대한 의지를 굳히게 된다. 둘은 서로의 이해관계 속에서 결합한 남녀 관계로 서로 어긋간 관계를 유지한다. 그러나 태평양전쟁이 일어나 영국이 홍콩을 함락하게 되면서 판류위엔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이로 인해 류쑤가 재혼에 성공하게 된다.



장아이링, <<경성지련>>(1943) - 역사와 개인의 욕망 사이에서

‘홍콩 함락은 그녀를 도와주었다. 그러나 이 이치에 맞지 않는 세계 속에서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 누가 알겠는가? 또 누가 알겠는가, 어쩌면 그녀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큰 대도시 하나가 넘어가버린 것인지. 수천수만의 사람이 죽어가고, 수천수만의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면서 뒤이어 온 경천동지할 대개혁(大改革)…… 류쭈는 결코 자신의 역사적인 지위가 어떤 미묘한 점을 지니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경성지련>>, p. 351

전쟁은 역사 전환의 결정적 역할을 한다. 전통적으로 영웅들이 역사와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 위치했고 존재했다. 그러나 장아이링은 류쭈의 입을 빌려 당돌하게 말한다. 나와 그의 사랑을 위해 대도시 전체가 무너져버린 것이 아니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지, 오히려 역사가 나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되묻는다.

傾城之戀, 그것은 무너진 도시의 사랑을 가리킨다. 이것은 아마도 전쟁으로 인해 사랑을 이루게 된 그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홍콩 함락이라는 공동체의 비극이 한 개인에게는 사랑의 결실이라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근대 중국 문학이 '국가·민족·계급' 등의 이데올로기에 집중한 반면, 장아이링의 작품은 집단보다는 개인적 성향의 개별화된 작품들이 주류를 이룬다. "내 작품에는 전쟁이 없고, 혁명이 없다. 나는 사람들이 연애할 때가 전쟁이나 혁명할 때보다 더 소박하고 더 대범하다고 생각한다"(「自己的文章」)는 그녀의 생각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현대인의 일상, 특히 불합리한 결혼 제도를 통렬히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녀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혁명가나 페미니스트가 아니다. 단지 장아이링은 중국 근대 여성들의 타협성과, 그들을 그렇게 만든 시대 상황을 비판적이고 우울한 그녀만의 문체로 묘사했을 뿐이다. 이러한 그녀의 문장들은 당대 주류 문학이었던 '사회적 리얼리즘' 작품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영역에서 있다. 그녀가 오랜 기간 중국 문학계에서 고평되지 못한 부분도 이러한 '역사성의 결여' 때문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의도된 역사의 배제가 다른 작가들이 그려내지 못한 깊이 있는 인간의 세계를 그려낼 수 있어 1990년대 이후 중국 근대 문학의 대표작가로 평가받고 있다.